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미래의 유산이 된다”

그는 “우리들의 모든 것은 미래에 유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모습을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싶었다”고 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것이 환기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삶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유물이 될 수 있다’는 작가의 얘기는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명징한 정의였다.

그렇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늘 우리의 삶을 시간 속에 흘려보낸다. 그 흘러보낸 삶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유물이 된다면? 그리고 유물이 이후 세대들에게 박제화된 기록이나 골동품이 아닌 현실의 자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생한 거울’이 된다면?

이정기 작가의 작품은 유물의 의미와 오늘의 시간이 ‘미래적 현재시점’으로 치환되는 경이로움을 말하고 있다. 향후 50년, 100년 이후의 상황을 가정해 현재에 재현한 작품은 ‘살아있는 유물’로 다가온다.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인 이정기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신세계갤러리(31일까지). 전시장에서는 회화를 비롯해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초대전 주제인 ‘미필적 고의’는 법률적 용어를 차용했다. 사전적 의미는 ‘범죄 사실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한다.

이 작가의 작품 주제와 연계하면 ‘싫든 좋든 우리의 모든 것이 미래에 유산으로 남게 된다’는 의미로 수렴됐다. 오늘날의 삶이 미래의 유산이 될 거라 생각하고 살지 않지 않는 시점에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자기검열’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울한 감정 상태로 인해 심리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니다. 무기력이라고 해야 할까, 삶의 무력감이 들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문득문득 엄습해왔어요. ‘병원에 가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문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번 작품의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가의 기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후의 답이 심오하면서도 ‘논리적’이었다. 한 눈 팔지 않고 묵묵히 작업에 전심인 그를 잘 아는 터라, 전시장에서 풀어놓는 말들은 목작했고 깊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 이정기 작가, 31일까지 ‘미필적 고의’ 전 가족 모티브 ‘부재’·‘위기의 가능성’ 해석...회화·조각·설치 작품



시대의 유물을 기념한다-Father



시대의 유물을 기념한다-Mother

은 사유를 요했다.

그는 “영화 속 허구의 이야기라 생각했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우리에게 혼란과 공포를 심어준 측면이 다분히 있다”면서도 “신냉전적 상황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다른 차원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다. 작가는 예전 어른들과 같은 보릿고개 세대도 아니고 콩나물고깃살의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야했던 베이비붐 세대도 아니다. 그 후세대이지만 본능적으로(예술가 특유의 감각일 것 같다) 작금의 위기의 상황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이번 전시에서 기존 ‘유물’ 작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부재’, ‘위기의 가능성’ 등을 일상적 경험과 해석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전 작품(시대의 유물: 기록)에서도 가족의 모습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도 가족을 모티브로 끌어왔어요.”

가족은 가장 편하지만 한편으로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다. 특히 부모의 삶은 오늘의 시대에 확장하고 초점화하는 것은 ‘거리’라는 가변적 요인 때문에 자칫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작가는 “33년생, 37년생이신 부모님 삶이 우리 근현대사와 맞닿아 있다”는 말로, 개인적 서사를 넘은 거

대담론의 보편성과 연계한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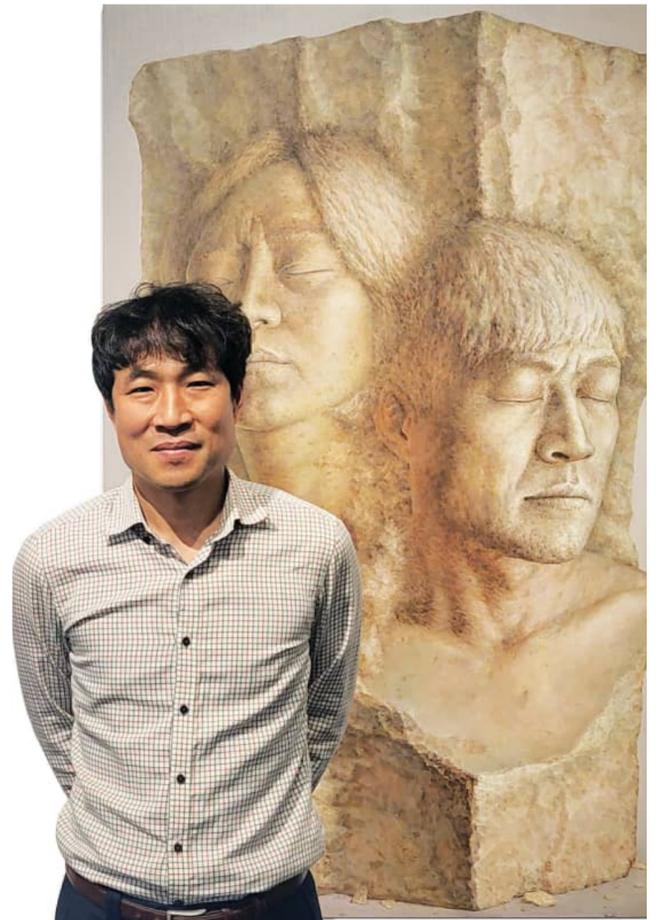
“‘부재’라는 주제는 죽음과 이별에 대한 슬픔이 담고 있는 상실감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큰 아들(작가의 형)의 빈자리를 문득문득 의식하는 부모님의 애절한 뒷모습에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던 애달픈 심경을 표현했지요.”

특히 아버지의 형제를 가운데 몇 분은 6·25때 희생을 당하기도 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는 심정”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게다.

작가는 “부모님 세대의 역사적 사연과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세대 간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느 가족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적인 영역과 역사적인 흐름, 가치를 통해 ‘유물’의 의미를 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역사적으로 박제화된 영웅이 아닌 부모님을 ‘유물’로 치환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 특정 권력자의 상징이나 보물과 같은 물질은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어쩌면 작가의 의도는 언제나 ‘유물’이 될지도 모를 오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일지 모른다.

/글: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가 자신과 아내를 모티브로 한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이정기 작가.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 ‘스프린터’ 만나다

광주극장 24일 개봉...시네아스트 비간 감독 ‘카일리 블루스’도

달리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인 스프린터가 있다. 다시 출발선에 서기까지는 남모를 우여곡절이 있다. 두 번의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성기를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든 현수, 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감내하는 정호 그리고 육상부 해체 위기에 놓인 유망주 준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서울독립영화제 화제작을 비롯해 차세대 시네아스트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극장은 24일 제47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 ‘스프린터’와 차세대 시네아스트 비간 감독의 데뷔작 ‘카일리 블루스’를 개봉한다. 또한 31일에는 제72회 베를린영화제 2관왕,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 37관왕을 석권한 ‘말없는 소녀’를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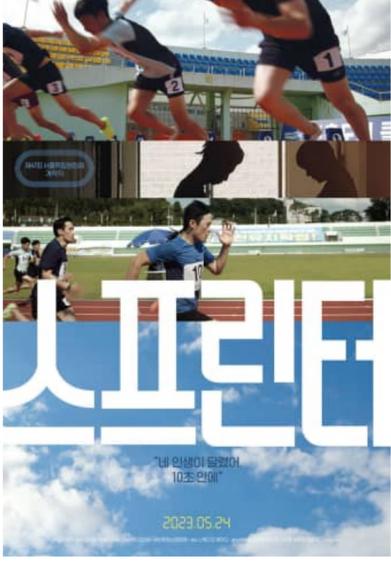
위에 언급한 ‘스프린터’는 각각 30대, 20대, 10대의 육상선수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단거리 육상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비롯해 개성적인 캐릭터, 공감 가는 서사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47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이 영화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서울독립영화제가 기획하고 제작, 배급까지 했던 ‘말이야 바른 말이지’가 상영된 바 있다.

오는 24일 개봉하는 ‘카일리 블루스’는 이색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서사가 펼쳐진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의 이야기이다. 작품은 예술영화만이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체면을



선사한다. 주인공 천성 역을 맡은 진영총의 존재감과 더불어 41분에 달하는 롱테이크 시퀀스까지 결합돼 색다른 묘미를 즐길 수 있다. 제 6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 등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 시상식에서 22관왕, 20회 노미네이션 영광을 안은 작품이다. 애정 없는 가족으로부터 먼 친척 부부에게 떠맡겨진



어린 소녀 코오트가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그린 ‘말 없는 소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그렸다. 제72회 베를린영화제 2관왕,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 37관왕을 석권해 화제가 됐다. 특히 작품은 미래의 시네아스트로 주목받는 롬 베어리드 감독의 아일랜드 영화로 눈길을 끌었다. 다정함이 가져오는 변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광주극장 관계자는 “이번 작품들은 서울독립영화제 화제작, 차세대 시네아스트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영화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더불어 잔잔한 감동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귀쟁이 며느리 ‘천하무쌍’

25~27일 ACC재단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어린이들은 방귀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나 연극 등을 좋아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담 방귀쟁이 며느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이 어린이들을 찾아온다. 특히 간단한 소품과 움직임만으로 연극적 상상력을 주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5일~27일(25일·26일, 오전 10시 30분, 27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천하무쌍<사진>’을 선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작품은 관객참여 공연으로 관객과의 자유로운 문답을 매개로 내용을 완성해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1명의 배우가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관객은 ‘소리를 만드는 창작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작품은 민담 방귀쟁이 며느리를 오늘의 시각에 맞게 각색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제



작했다”며 “‘더 넓은 교실’ 프로젝트를 매개로 교과과정을 재구성하고, 극장을 교실의 연장선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관람료 1만원. 이번 공연과 함께 광주-전남 초등 교사가 직접 예술강사로 참여하는 공연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희경 교수 번역 ‘바진의 수상록’ 출간

‘바진’ 20세기 中문학 대표 작가...80년대 중국 이해하는 중요 작품

중국 작가 바진(1904~2005)은 20세기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의 대표 산문집 ‘수상록’은 지난 1978년말부터 1986년까지 8년간 집필한 대표 작품집으로, 80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바진의 ‘수상록’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대부분 번역본이었다.

최근 이희경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번역한 ‘바진의 수상록’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이번 책은 중국인문연구소(소장 이주노)가 기획한 ‘중국인문총서 1’로 출간됐으며 이번 한국어판은 일본어판에 이은 두 번째 완역본이다.

‘수상록’에서 바진은 ‘5·4운동’, ‘중일전쟁’, ‘반우파 투쟁’, ‘문화’ 등의 정치사 및 신중국의 문예 정책, 개



혁개방 이후 발생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중국인문연구소 관계자는 “바진의 ‘수상록’은 중국 현대사적인 사상적 역정과 역사적 경험으로 얻어진 상처를 독특하고 세심하게 기록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며 “중국현대사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출판협회 ‘가장 재미있는 책’ 10종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과 ‘가장 즐거운 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는 만화5종, 웹소설 5종 등 모두 10종을 선정했다. 만화 부문에서는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은’ ‘도토리 문화센터’ ‘망그리진 만화’ 등이 뽑혔다.

2022년 1월부터 1년간 국내에서 발행된 만화책을 대상으로 한국만화출판협회가 심사했다. 대중성, 소재의 참신성, 작화와 캐

릭터의 독창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웹소설 부문에서는 ‘대가는 너희의 모든 것’ ‘봄그늘’ ‘환생했더니 단종의 보모나인’ 등이 선정됐다.

2021년 11월부터 1년 동안 새로 연재를 시작한 책 중에서 완결되었거나 연재 중인 책을 대상으로 한국웹소설협회가 작품성과 대중성, 글의 특징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어린이 도서 부문인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10종도 선정했다. /연합뉴스